

대학생의 불안정 애착이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 자기방어적 양가성의 매개효과와 소극적 대처의 조절효과[†]

김 민 지
한신대학교
임상심리연구센터

오 현 숙[#]
한신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불안정 애착과 신체화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 관계에서 자기방어적 양가성의 매개효과와 소극적 대처방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28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측정 도구는 한국판 간이 정신건강진단검사, 성인애착척도, 한국판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를 사용하였고, 분석 도구는 SPSS 28.0 및 SPSS PROCESS Macro version 4.0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불안정 애착은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신체화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불안정 애착과 신체화의 관계를 완전매개하였다. 또한 소극적 대처는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신체화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나타났고, 조절매개모형에서도 소극적 대처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신체화 증상에 개입하는 임상장면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논의하였다.

주요어: 불안정 애착, 자기방어적 양가성, 소극적 대처, 신체화

[†] 이 논문은 김민지의 석사학위 청구논문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오현숙, (18101) 경기도 오산시 한신대길 137 한신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Tel: 031-379-0671, E-mail: hyunsookoh@hs.ac.kr

 Copyright ©2025, The Korean Health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신체화란, 식별 가능한 의학적 원인이 없는 상태에서도 두통이나 소화불량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며, 이러한 증상을 실질적인 질병으로 해석하고 의료 도움을 찾는 경향을 말한다(Lipowski, 1988). 신체화의 유병기간은 평균 10년으로 만성화되기 쉽고(김호찬 외, 1992), 우울과 불안 등의 신경증적 증상이나, 주의력과 기억력 저하가 동반되기도 하는 등(박문규, 손정락, 2011; 박영남, 1984; Bridges & Goldberg, 1985) 신체화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의 기능 손상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질적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신체화 증상의 특성상 주변 사람들로부터 증상에 대한 이해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위축되기도 한다(신현균, 2016). 이렇듯 신체화 증상을 보이는 개인은 일상생활에서의 기능적 저하가 나타난다(Barsky & Borus, 1995; Konnopka et al., 2012).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ition(DSM-5)에서도 한 개 이상의 신체적 증상을 고통스럽게 호소하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이 현저하게 방해받으며, 신체 증상에 대한 과도한 사고, 감정, 또는 행동이나 증상과 관련된 과도한 건강염려를 나타내는 증후군을 신체증상장애로 정의하고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신체증상장애란 신체화 증상과 함께, 그 증상을 심리적 이유로 해석하지 않고 심각한 신체적 질환으로 인식하고 과도하게 걱정하는 상태인 것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22), 신체증상장애의 유병률은 6.7%~17.4%라고 보고되었다. 또한 한국에서 2023년 기준으로, 입원 환자 중 5,813명과 지역사회 재활기관 이용자 3,195

명이 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F40- F43)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3). 이러한 수치는 한국에서 신체화 증상을 포함한 문제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선행 연구에서 한국에서 신체화 증상을 가장 많이 호소한 연령대는 20대에서 40대였으며(신현균, 2016), 또 다른 연구에서는 대학생 집단이 신체화 증상을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정민, 지혜, 2011).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로, 이 시기의 적응 수준은 이후 발달단계의 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 집단의 신체화 증상은 성인기 전반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따라 대학생 시기의 신체화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탐색하고 치료 개입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정신분석이론에서는 생에 초기에 개인이 양육자와 갖는 관계가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는데, 양육자와의 관계가 불안정할 경우 자신의 정서에 대한 이해와 정서조절 능력의 발달에 어려움을 겪어 신체적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았다(Bucci, 1997; Ford, 1984). 이후 연구에서도 애착은 신체화 증상과의 관련성이 보고되어왔다(김용희, 2006; 신현균, 2002; 정계숙, 2009; 차남희, 장석진, 2018; Rey & Plapp, 1990).

애착(Attachment)이란,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 유대관계를 의미한다. 유아가 생존을 위해 양육자에게 접근할 때, 유아는 양육자의 반응에 따라 저마다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자기와 타인에

대한 정신적인 표상인 내적 작동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의 기초가 된다(Bowlby, 1988). 양육자가 아동에게 민감하고 일관되게 반응하면, 아동은 타인은 신뢰할 수 있다는 내적 표상을 갖고, 자신이 유능하고 사랑받을 존재라는 인식하게 된다. 반면 양육자가 일관되지 않거나 거부적으로 반응하면, 아동은 타인이 신뢰롭지 못하다는 내적 표상을 지니게 되고, 자신이 가치 없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여기게 되어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게 된다(Bowlby, 1973).

성인기의 불안정 애착은,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Hazan & Shaver, 1987). 불안애착은 타인에게 관심과 보살핌을 얻는 것에 열중하고, 거부와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김성현, 2004; 이현주, 안명희, 2012). 반면, 회피애착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방어적으로 굴며, 가까운 타인의 거절로 인한 좌절감을 경험하기 두려워하는 것이 특징이다(김병직, 2009; 이현주, 안명희, 2012).

또한 안정적인 부모-자녀 애착은 신체화 경험의 예방에 의미있는 요인으로 알려졌다(Ficher & Kapusianyk, 1983; Merskey et al., 1987; Salter, Brooke, Merskey, 1983). 더불어 국내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가 신체화 증상과 관련이 깊다고 보고되고 있다(신현균, 2002; 정계숙, 2009). 이렇듯 애착이 신체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선행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애착은 신체화 증상 이외에도 정서 및 인지, 스트레스 대처 등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에, 불안정 애착은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과 상호작용하여 신체화 증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 연구들 또한 신체화 증상의 발현과 유지에 기여하는 정서, 인지, 가족, 스트레스 및 문화 변인들을 다루어 왔으나(임혜경, 2013), 선행 연구의 다수는 단일 매개나 이중 매개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 애착이 신체화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경로를 규명하고,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는 심리적 요인을 탐색하므로써, 신체화 증상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높이는 동시에 효과적인 심리적 개입을 구체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 애착이 대학생의 신체화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이 주요한 매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불안정 애착은 정서를 언어적으로 표현하거나 사회적 지지를 요청하는데 어려움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으며, 정서표현의 어려움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서적 고통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보고된다(김용희, 2006; Waller & Scheidt 2004). 신체화 증상은 자신의 사회 심리적 어려움이나 정서적 어려움을 신체증상을 통해 경험하고 표현하며 의사소통하는 방식이기에(Kirmayer, 2001; Lipowski, 1988), 불안정 애착이 신체화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표현 어려움이 매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러한 정서표현의 어려움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이 정서표현 양가성이다. King과 Emmons(1990)는 정서표현 양가성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를 억제하는 갈등으로 정의하였다. 정서표현 양가성은 다양한 심리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실제로 한 선행

연구에서 고등학생 집단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이 부모애착과 신체화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희, 2012). 이는 애착의 질이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내적 갈등을 통해 신체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애착은 발달적으로 안정적인 특성을 지니며, 성인기 초기 대상자의 72%가 유아기와 동일한 애착 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가 있다(Waters et al., 2000).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집단뿐 아니라 성인기 초기인 대학생 집단에서도 정서표현 양가성이 애착과 신체화 증상을 매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였다.

King과 Emmons(1990)가 개발한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를 최해연과 민경환(2007)이 한국 문화에 적합하도록 변안 및 타당화 하는 과정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하위요인으로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관계관여적 양가성이 구분되었다.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갈등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것에 대한 불능감과 표현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하고,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인상관리나 대인관계 보호를 위하여 표현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반영한다(심서영, 하유진, 2012; 최해연 외, 2008). 이러한 구분은 정서표현의 억제가 어떤 측면에서 부적응적으로 작용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특히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정서표현 양가성이 개인주의 문화와 달리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를 낳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실제로 국내 선행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문화적 특성은 정서표현 양가성이 작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중년 여성은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개인주의 문화권에 비해 한국에서는 정서표현 양가성의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이승미, 오경자, 2006),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을 때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대인관계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오히려 대인관계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효원, 정남운, 2021). 이는 관계관여적 양가성이 집단주의적 성격을 지닌 한국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관계관여적 양가성보다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높은 사람이 정서 경험을 회피하는 경향이 크고 신체화와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는 선행연구가 존재한다(박찬명, 2020; 최해연 외, 2008).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서표현 양가성을 두 하위요인으로 구분하고 두 하위요인 중 신체화 증상과 보다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자기방어적 양가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정서표현 양가성은 단순히 애착과 신체화 증상을 매개할 뿐 아니라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상호작용하여 부적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스트레스 대처란, 스트레스 상황에서 평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시도로서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인지적, 행동적 노력이다(Folkman & Lazarus, 1985).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라는 하위요인으로 구분된다. 적극적 대처는 외부적 노력을 통해 극적으로 저해요소나 좌절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대처방식으로 소개된다(김정희, 1987; Billings & Moos, 1981). 반면, 소극적 대처는 자신의 사고나 감정이 내부로 투여되어 상황을 회피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대처방식이다. 일반

적으로 소극적 대처보다는 적극적 대처가 건강에 미치는 스트레스의 충격을 조절하는 것에 있어 효과적이며, 소극적 대처는 심한 부적응 수준에서는 부적응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박선영, 1993; Billings & Moos, 1984; Folkman, 1984). 따라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소극적 대처를 많이 사용할수록 신체화 증상과 같은 부적응 증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서표현 양극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높은 관련성을 보인다. 정서표현 양가성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갈등을 회피하고 분산시키기 위해 정서중심적 대처 방식을 많이 사용하며(김주연 외, 2015; 이승미, 오경자, 2006), 정서표현 양가성이 소극적 대처방식을 매개로 하여 부적응적인 증상을 나타낸다는 선행 연구가 존재한다(김나윤, 2020; 김은정, 2009; 김정문, 2010). 이는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을 경우에는 감정을 억제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으로 인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소극적 대처를 사용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부적응적 증상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매개모형은 정서표현 양가성과 부적응적 결과 간의 관계가 모든 수준의 소극적 대처방식에서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으며, 정서표현 양가성의 하위요인인 자기방어

적 양가성과 소극적 대처의 연관성을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소극적 대처방식의 수준에 따라, 정서표현 양가성 특히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부적응적으로 이어지는 경로나 강도가 달라질 가능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 애착과 신체화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매개 역할을 할 것이며, 이 경로에서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신체화의 관계를 소극적 대처가 조절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신체화 증상을 일으키는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체화 증상에 보다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이론적 모델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겠다. 특히, 스트레스 대처는 인지적이며 행동적인 노력이고 (Folkman & Lazarus, 1985) 비교적 변화 가능한 요인이다. 따라서, 임상장면에서 신체화 증상에 개입할 때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조정하는 개입이 애착과 같은 안정적인 요인에 직접 개입하는 것 보다 단기간 내 효과적인 증상 호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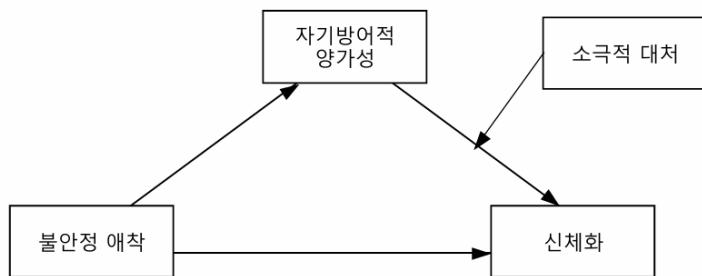


그림 1. 연구의 이론적 모형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만 18세 이상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패널과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설문 링크를 게시하고, 한신대학교 심리학과 재학생들에게 직접 방문하여 온라인 자기보고식 방식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참가자들에게 연구목적과 비밀유지 및 익명성을 설명한 후 설문을 진행하였다. 총 280개의 설문지 중 일부 문항에서 응답을 누락하거나 연속적으로 동일한 응답을 반복한 24부와 신체화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51명을 제외한 205개의 설문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여 161명, 남 44명으로, 연령의 범위는 만 18세에서 만 29세였으며, 전체 평균 나이는 21.5세, 표준편차는 1.99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간이 정신건강 진단검사(Symptom Checklist-90-Revised [SCL-90-R])의 신체화 척도. 본 연구에서는 신체화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Derogatis(1977)가 개발한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를 김광일 등(1984)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한국판 간이 정신건강 진단검사(SCL-90-R)’를 사용하였다. SCL-90-R 본 연구에서는 신체화를 평가하는 12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예: “머리가 아프다”, “어지럽거나 현기증이 난다”). 점수는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받는 소화기, 순환

기, 호흡기 및 기타 기관의 장애, 두통, 통증 등 신체적 기능 이상을 더 많이 호소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인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2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애착 척도(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Revised).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Brennan 등(1998)이 개발하고 Fraley 등(2000)이 개정한 척도를 김성현(2004)이 번안·타당화한 한국판 성인애착 척도(ECR-R)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두 하위요인으로 구분되며,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31문항 모두를 분석에 사용하였다(예: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 편이다”, “때론 다른 사람들은 분명한 이유 없이 나에 대한 그들의 감정을 바꾸곤 한다”). 점수는 Likert 4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애착 차원의 특성이 높다고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나타내는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1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 Korean version). 본 연구에서는 King과 Emmons(1990)가 개발한 정서표현 양가성 설문지를 최해연과 민정환(2007)이 재구성한 한국판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척도(AEQ-K)’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24개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기방어적 양가성 13개 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예: “종종 내가 느끼는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만 웬지 망설여진다”, “내 문제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정말 이야기하고 싶지만, 때때로 그러지 못한다"). 점수는 Likert 5점 척도를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배척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정서표현에 있어서 양가성을 많이 느낀다고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13개의 자기방어적 양가성 문항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1으로 신뢰도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The Ways of Coping Checklist).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Folkman과 Lazarus (1985)가 개발하고 한국에서 김정희(1987)가 요인 분석하여 개발한 척도를 다시 정유미(2004)가 수정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극적 대처 요인의 문항을 12개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문항은 총 12개이며, 점수는 Likert 4 점 척도를 사용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서적 대처와 심미적 사고를 사용하여 대처하는 빈도가 높다고 해석한다(예: “일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공상이나 소망을 한다”, “자신이 처한 지금의 상황보다 더 좋은 경우를 상상하거나 공상을 한다”). 본 연구에서 12개의 소극적 대처 문항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62로 최소한의 신뢰도 수준을 갖추어 수용가

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절차

본 연구에서는 SPSS 28.0과 SPSS PROCESS Macro version 4.0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불안정 애착, 신체화, 자기방어적 양가성, 소극적 대처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산출하였으며 각 변인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소극적 대처가 불안정 애착이 자기방어적 양가성을 매개하여 신체화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에서 조절변인으로 작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프로그램 Model 14번을 실행하였다. 이 때 변인 간의 다중 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변수들에 대해 평균 중심화를 실시하였다.

결과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량을 표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불안정 애착, 신체화, 자기방어적 양가성, 소극적 대처의 상

표 1.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N=205$)

	변인	1	2	3	4
1	신체화	–			
2	불안정 애착	.37***	–		
3	자기방어적 양가성	.41***	.74***	–	
4	소극적 대처	.24***	.16*	.25***	–
	<i>M</i>	20.87	83.07	42.73	25.69
	<i>SD</i>	5.91	14.73	11.31	3.56

* $p<.05$, ** $p<.001$

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체화는 불안정 애착($r=.37, p<.001$), 자기방어적 양가성($r=.41, p<.001$), 소극적 대처($r=.24, p<.01$)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불안정 애착은 자기방어적 양가성($r=.74, p<.001$) 및 소극적 대처($r=.16, p<.05$)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소극적 대처($r=.25, p<.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불안정 애착과 신체화의 관계에서 자기방어적 양가성의 매개효과와 소극적 대처의 조절효과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불안정 애착과 신체화의 관계에서 자기방어적 양가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동시에 소극적 대처가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지 함께 검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표 2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불안정 애착은 자기방어적 양가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B=0.57, p<.001$), 자기방어적

표 2. 불안정 애착과 신체화의 관계에서 소극적 대처의 조절된 매개 효과(N=205)

예측변인	매개변인: 자기방어적 양가성				
	B	SE	t	신뢰구간	
				LLCI	ULCI
불안정 애착	0.57	.03	15.95***	0.50	0.64
종속변인: 신체화					
	B	SE	t	신뢰구간	
				LLCI	ULCI
불안정 애착	0.05	0.03	1.45	-0.01	0.12
자기방어적 양가성(A)	0.13	0.04	2.81**	0.04	0.23
소극적 대처(B)	0.19	0.10	1.82	-0.01	0.41
A X B	0.02	0.00	3.00**	0.00	0.03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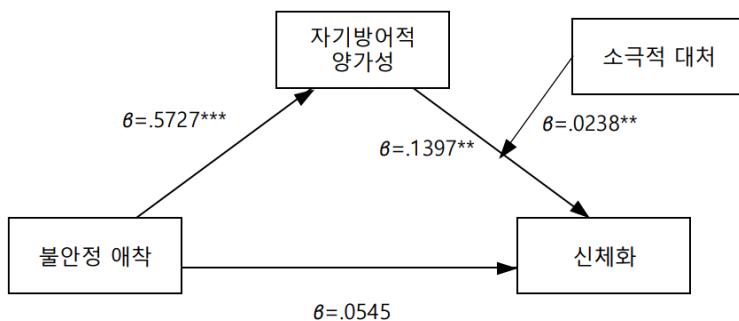


그림 2. 소극적 대처의 조절된 매개 효과 통계 모형

양가성은 신체화에 정적 영향을 미쳐 ($B=0.13$, $p<.01$) 매개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조절 변인인 소극적 대처의 상호작용항은 신체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B=0.02$, $p<.01$)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표 2). 불안정 애착과 신체화의 관계에서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완전매개를 보이며, 이 경로에서 소극적 대처가 자기방어적 양가성의 매개 효과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즉, 불안정 애착이 높은 사람은 자기방어적 양가성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신체화 증상이 나타나게 되지만 이 수준은 소극적 대처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게 된

다는 결과이다.

조절 효과의 조건부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소극적 대처의 수준을 평균보다 1 표준편차 큰 값, 평균, 평균보다 1 표준편차 작은 값으로 구분하고, 각 수준에서 자기보호적 양가성이 소극적 대처와 상호작용하여 신체화를 예측하는 정도를 비교하였다. 표 3에 제시된 결과와 같이, 소극적 대처의 유의한 조절효과는 평균에서 표준편차 1까지의 집단에서 유의하였다. 이는 소극적 대처가 높을수록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이 강화되는 반면, 소극적 대처 수준이 낮을 때에는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이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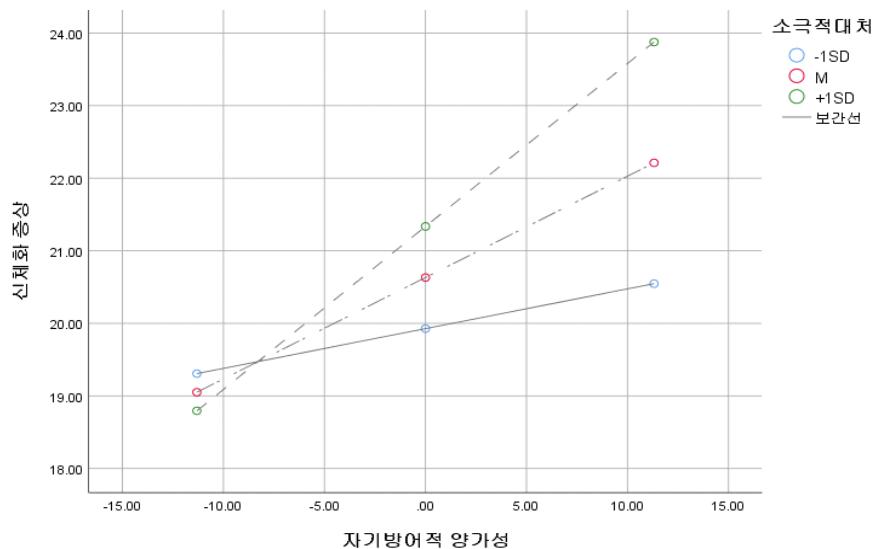


그림 3.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신체화의 관계에서 소극적 대처의 조절효과

표 3.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신체화의 관계에서 소극적 대처의 조건부 값에 따른 간접효과($N=205$)

	B	SE	t	p	LLCI	ULCI
-1SD	0.05	0.05	0.99	.31	-0.05	0.16
Mean	0.13	0.04	2.81**	.00	0.04	0.23
+1SD	0.22	0.05	3.78***	.00	0.10	0.34

** $p<.01$, *** $p<.001$

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조절변인의 조건 부 효과를 보다 상세히 탐색하기 위한 Johnson-Neyman 검증 결과, 평균 중심화된 소극적 대처 값이 -1.70보다 높은 영역에서 조절 효과가 유의하였으며 이는 전체의 75.6%에 해당하였다.

본 결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그림 3을 통해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그래프 기울기를 보면 소극적 대처가 높은 집단일수록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소극적 대처가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이 더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는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이 소극적 대처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조절 효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체화 증상의 발생 및 유지에 기여하는 심리적 요인을 탐색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신체화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하여 신체화 증상 경감을 위한 개입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대학생의 신체화 증상은 일상 기능과 삶의 질을 크게 저해하고 이후 성인기의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그 기제를 이해하고 개입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해 애착과 신체화가 높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으나, 애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단기적 개입을 통해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체화 증상에 보다 빠른 개입이 가능한 요인으로서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주목하였다. 특히 불안정 애착이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방어적 양가성이라는 정서적 요인을 소극적 대처가 조절하는지를 검증하여 신체화 증상 개입 경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불안정 애착과 신체화의 관계에서 자기방어적 양가성의 매개효과와 소극적 대처의 조절매개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소극적 대처에 대한 개입이 신체화 증상을 경감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담 및 임상 현장에서 신체화 증상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개입 전략을 개발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 및 그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신체화는 불안정 애착과 자기방어적 양가성, 소극적 대처와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 신체화 증상에 기여하는 다양한 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신체화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불안정 애착, 자기방어적 양가성, 소극적 대처를 많이 보인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김용희, 2006; 김학렬 외, 1997; 박찬명, 2020; 신현균, 2002; 주소망, 김정민, 2019; 정계숙, 2009; Billings & Moos, 1984; Folkman, 1984; Rey & Plapp, 1990). 또한 불안정 애착은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소극적 대처와도 각각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소극적 대처도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각 요인들이 독립적으로 신체화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변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신체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담 및 임상 현장에서 신체화 증상을 다룰 때에는 단순히 신체적 호소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신체화 증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애착 특성, 정서표현의 어려움, 스트레스 대처방식 등

심리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입하는 방향으로 치료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조절매개 모델에서 불안정 애착이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은 정서표현 양가성의 하위요인인 자기방어적 양가성에 의해 완전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집단에서 애착과 신체화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이 매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아 한다(이상희, 2012).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집단에서도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신체화 증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대학생의 불안정 애착이 정서를 표현하려는 욕구와 이를 억제하려는 자기방어적 동기간의 내적인 갈등을 거쳐 신체화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상담 및 임상 현장에서는 적절한 정서표현을 촉진하는 정서표현 훈련 개입이 불안정 애착을 가진 대학생의 신체화 증상의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신체화 증상을 보고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불안정 애착이 자기방어적 양가성을 매개로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은 소극적 대처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소극적 대처가 높은 경우에는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나타날수록 신체화 증상이 심화되었으나, 소극적 대처가 낮은 경우에는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높더라도 신체화 증상이 증가하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극적 대처가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신체화 증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조절변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정서표현 양가성을 경험하는 사람이 소극적 대처방식을 매개로 하여 부적응적인 증상을 나타낸다는 선행연구에서(김나윤, 2020; 김

은정, 2009; 김정문, 2010). 한 발 더 나아가, 정서표현 양가성의 하위요인인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소극적 대처와 관련이 있으며 서로 상호작용하여 신체화 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혀내었다. 또한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소극적 대처의 관계를 단순한 매개가 아닌 조절효과로 검증함으로써, 두 변인이 결합될 때 신체화 증상이 어떻게 강화되는지를 밝혔다. 이는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더라도 스트레스 상황에서 소극적 대처를 적게 사용할 경우,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신체화 증상의 경감을 위해서는 정서적 요인과 함께 개인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 또한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신체화 증상이 있다고 보고하는 대학생 집단이었으므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중증 신체화 증상을 나타내는 임상군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신체 증상을 더 많이 호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본 연구의 참여자 중에서도 여성의 비율이 79%로 매우 높았다. 이는 연구 결과에 여성의 특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성별 구성의 균형을 고려하고, 보다 다양한 인구집단과 더 큰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 모형의 재현성을 검증하고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한계 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후 연구에서는 제 3자의 평정 결과를 함께 실시하여

타당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횡단적인 연구 설계를 사용하였으므로, 매개변인이나 조절변인의 변화가 있을 때 실제로 신체화 증상의 수준에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명확하게 검증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소극적 대처를 줄이는 스트레스 대처 훈련에 대한 개입이 실제적으로 신체화 증상에 효과적인지를 경험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신체화 증상을 보이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신체화 증상에 기여하는 불안정 애착, 자기방어적 양가성, 소극적 대처의 상호 관계를 통합적으로 검증하여 신체화 증상의 발생 및 유지 기제를 밝혀내었다. 그 결과, 청소년뿐 아니라 대학생의 신체화 증상에서도 불안정 애착과 신체화의 관계에서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매개효과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들이 주로 정서표현 양가성과 소극적 대처라는 요인의 단일 또는 이중 매개 관계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정서표현 양가성의 하위요인인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소극적 대처의 조절적 상호작용을 확인함으로써 정서적 요인과 스트레스 대처 요인이 결합될 때 신체화 증상이 어떻게 심화될 수 있는지 보다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서표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소극적인 대처를 덜 사용하도록 돋는 것이 신체화 증상을 완화하는 핵심적인 개입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신체화 증상을 이해하는 이론적 틀을 확장했을 뿐 아니라, 상담 및 임상 현장에서 정서적 요인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치료적 접근의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문적이고 실천적인 의의를 갖는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는 신체화 증상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정서적 억제나 스트레스 대처의 불균형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성을 확장하여 구체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겠다.

참 고 문 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 시도별 특정 정신질환 상병 별 진료 정보 (2023.12.31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data.edmgr.kr/dataView.do?id=www-data-go-kr-data-filedata-15142589&utm_source=chatgpt.com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 요강. 중앙적성출판부.
- 김나윤 (2020). 성인의 정서표현 양가성이 스마트폰 종독에 미치는 영향: 소극적 대처방식과 외로움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http://kcg.u.dcollection.net/public_resource/pdf/200000289552_20260102222058.pdf
- 김병직 (2009). 성인 애착과 우울 사이를 매개하는 변인의 탐색: 반주와 정서 억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https://dcollection.yonsei.ac.kr/public_resource/pdf/000000116001_20260102222242.pdf
- 김성현 (2004). 친밀 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확증적 요인분석과 문항 반응 이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http://dcollection.snu.ac.kr:8080/ezpdfdrm/dCollection.jsp?siItemId=00000055059>
- 김용희 (2006). 애착과 신체화의 관계에 대한 자기개념 변인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1), 25-

36.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124236>
- 김은정 (2009). 아동기 외상과 초기성인기 우울수준과의 관계: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 및 회피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474387>
- 김정문 (2010). 불안정 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동적 사고, 정서 인식, 정서표현 양가성,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https://hanyang.dcollection.net/public_resource/pdf/200000413788_20260103003030.pdf
- 김정민, 지혜 (2011). 발달적 차이에 따른 신체화 증상 관련 변인 연구-정서적, 인지적 및 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2(4), 1109-1130. <https://www.dbpia.co.kr/pdf/pdfView.do?nodeId=NODE11122390&width=1394>
- 김주연, 박경훈, 이영순 (2015). 정서경험 군집에 따른 정서조절전략 및 갈등해결전략의 차이. *재활심리연구*, 22(2), 377-391.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24037>
- 김정희 (1987). 지각된 스트레스 요인 및 대처양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박사학위청구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학렬, 조용래, 조준호 (1997). 대학교 신입생들에서 지각된 스트레스 및 취약성 변인과 신체화 경향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정신신체의학*, 5(1), 63-72.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Article.do?cn=JAKO199734515160289>
- 김호찬, 오동원, 도정수 (1992). 신체화 장애의 임상 양상. *신경정신의학회지*, 31(2), 240-251. <https://scholar.kyobobook.co.kr/article/detail/4050026267369>
- 박문규, 손정락 (2011). 신체화 집단의 인지 편향 및 주의력과 기억력 저하.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3), 623-641.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593959>
- 박선영 (1993). 스트레스 상황에서 인지적인 평가와 대처 행동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영남 (1984). 신체증상을 주소로 하는 정신과외래 환자의 임상적 고찰. *계명의대 논문집* 3(2), 169-174 <https://kumel.medlib.dsmc.or.kr/handle/2015.oak/14356>
- 박찬명 (2020). 여대생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신체화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https://hanyang.dcollection.net/public_resource/pdf/200000438612_20260103011418.pdf
- 신현균 (2002). 청소년의 학업부담감, 부정적 정서, 감정표현불능증 및 지각된 부모양육행동과 신체화 증상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1), 171-187.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0888423>
- 신현균 (2016). 신체 증상 및 관련장애. *학지사*. https://www.hakjisa.co.kr/subpage.html?page=book_book_info&bidx=3378
- 심서영, 하유진 (2012). ‘정서표현 양가성’과 궁정정서, 부정정서, 우울간의 관계: 성격변인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4), 1073 - 1092.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720180>
- 이상희 (2012). 부모애착과 신체화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의 양가성, 정서표현불능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https://incheon.dcollection.net/public_resource/pdf/000001216544_20260103011822.pdf
- 이승미, 오경자 (2006). 정서인식불능, 정서표현에 대한 양자감정, 정서표현성이 중년 기혼 여성의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

- (1), 113-128. <https://www.kci.go.kr/kciportal/ci/s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d=ART001088463>
- 이현주, 안명희 (2012).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청소년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 정신화 능력과 부정적 정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3), 413-434. <https://www.kci.go.kr/kciportal/ci/s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d=ART001699755>
- 이효원, 정남운 (2021). 정서표현양가성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적극적 대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4), 1 - 12 <https://www.kci.go.kr/kciportal/ci/s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d=ART002740337>
- 임혜경 (2013). 대학생의 신체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대학원]. <https://dcollection.pusan.ac.kr/srch/srchDetail/000000085733>
- 정계숙 (2009). 정서 관련 아동 및 부모 양육 변인에 따른 초등학교 아동의 신체화 증상. *아동학회지*, 30(4), 155-171.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084316>
- 정유미 (2004). 해결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사회적 문제해결과 스트레스 대처 능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http://imgsvr-riss4u-net.libproxy.hs.ac.kr/contents3/td_contents9/09303/174/09303174.pdf
- 주소망, 김정민 (2019). 대학생의 부정적 정서신념이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양가성의 조절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35(2), 361-378. <https://kiss-kstudy-com.libproxy.hs.ac.kr/Detail/Ar?key=3685598>
- 차남희, 장석진 (2018). 기혼여성의 성인애착과 신체화의 관계: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9(3), 277-291. <https://kiss-kstudy-com.libproxy.hs.ac.kr/DetailOa/Ar?key=51940601>
- 최해연, 민경환, 이동귀 (2008). 정서표현신념과 심리적 증상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역할. *상담학연구*, 9(3), 1063 - 1080. <https://kiss-kstudy-com.libproxy.hs.ac.kr/DetailOa/Ar?key=50874059>
- 최해연, 민경환 (2007). 한국판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척도의 타당화 및 억제 개념들 간의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71-89. <https://kiss-kstudy-com.libproxy.hs.ac.kr/DetailOa/Ar?key=50701054>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5th Edition(DSM-5)*. Washington, DC: Author.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22).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text rev.; DSM-5-TR)*.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 Barsky, A. J., & Borus, J. F. (1995). Somatization and medicalization in the era of managed care. *JAMA*, 274(24), 1931 - 1934.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article-abstract/393314>
- Billings, A. G., & Moos, R. H. (1981). The role of coping responses and social resources in attenuating the stress of life event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2), 139-157.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BF00844267>
- Billings, A. G., & Moos, R. H. (1984). Coping, stress, and social resources among adults with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4), 877-891. <https://doi.org/10.1037/0022-3514.46.4.877>
- Bucci, W. (1997). *Psychoanalysis and Cognitive Science: A multiple code theory*. Guilford Pres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2)*. Basic Books.
- Bowlby, J. (1988). *A secure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Basic Books.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 46–76). Guilford Press.
- Bridges, K. W., & Goldberg, D. P. (1985). Somatic presentation of DSM-III psychiatric disorders in primary car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29(6), 563–569.
- Derogatis, L. R. (1977). *SCL-90-R: Administration, scoring and procedures manual*. Baltimore, MD: Clinical Psychometric Research.
- Ford, C. V. (1984). Somatizing disorders. In H. B. Roback (Eds.), *Helping patients and their families cope with medical problems*. (pp. 39–59).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Folkman, S. (1984). Personal control and stress and coping processes: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4), 839–852. <https://doi.org/10.1037/0022-3514.46.4.839>
- Folkman, S., & Lazarus, R. S. (1985). If it changes it must be a process: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a college 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1), 150–107. <https://doi.org/10.1037/0022-3514.48.1.150>
- Fraley, R. C., Waller, N. G., & Brennan, K. A. (2000). An item-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2), 350–365. <https://doi.org/10.1037/0022-3514.78.2.350>
- Hazan, C., & Shaver, P. R.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https://doi.org/10.1037/0022-3514.52.3.511>
- King, L. A., & Emmons, R. A. (1990). Ambivalence over expressing emotion: Physical and psycholog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5), 864–877.
- Kirmayer, L. J. (2001). Cultural variations in the clinical presentation of depression and anxiety: Implications for diagnosis and treatment.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62(13), 22–30. https://www.psychiatrist.com/wp-content/uploads/2021/02/12281_cultural-variations-clinical-presentation-depression.pdf
- Konnopka, A., Schaefer, R., Heinrich, S., Kaufmann, C., Luppa, M., Herzog, W., & König, H. H. (2012). Economics of medically unexplained symptoms: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Psychotherapy and Psychosomatics*, 81(5), 265–275. <https://doi.org/10.1159/000337349>
- Lipowski, Z. J. (1988). Somatization: The concept and its clinical applicatio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5(11), 1358–1368. <https://doi.org/10.1176/ajp.145.11.1358>
- Rey, J. M. & Plapp, J. M. (1990). Quality of perceived parenting in oppositional and conduct disordered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9(3), 382–385. <https://doi.org/10.1097/00004583-199005000-00008>
- Salter, M., Brooke, R. I., Merskey, H., Fichter, G. F., & Kapusianyk, D. H. (1983). Is the temporomandibular pain and dysfunction syndrome a disorder of the mind? *Pain*, 17(2), 151–166. [https://doi.org/10.1016/0304-3959\(83\)90139-2](https://doi.org/10.1016/0304-3959(83)90139-2)
- Waller, E., Scheidt, C. E., & Hartmann, A. (2004). Attachment representation and illness behavior in somatoform disorders.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2(3), 200–209. <https://doi.org/10.1097/01.nmd.0000116463.17588.07>
- Waters, E., Merrick, S., Treboux, D., Crowell, J., & Albersheim, L. (2000). Attachment security in infancy and early adulthood: A twenty-year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71(3), 684–689. <https://doi.org/10.1111/1467-8624.00176>

원고접수일: 2025년 9월 1일

논문심사일: 2025년 9월 18일

게재결정일: 2025년 10월 30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26. Vol. 31, No. 1, 87 - 103

The Effect of Insecure Attachment on Somatization of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Defense Ambivalence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Passive Stress Coping

Minji Kim Hyunsook Oh

Department of Psychology Hanshin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secure attachment and somatiza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emphasizing the mediating role of self-defense ambivalence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passive stress coping. A total of 280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urvey, using several instruments: the Korean version of the Mental Health Screening Questionnaire, the Adult Attachment Scale, the Korean version of the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Scale, and the Stress Coping Scale.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28.0 and the SPSS PROCESS Macro version 4.0. The results indicated that insecure attachment significantly influenced both self-defense ambivalence and somatization, with self-defense ambivalence fully medi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Furthermore, passive coping moderated the connection between self-defense ambivalence and somatization, and the moderated mediation model produced significant findings.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terventions aimed at training coping strategies in stressful situations may be crucial for preventing and alleviating somatic symptoms in short-term counseling and clinical contexts. The research findings were discussed in terms of their application to clinical settings addressing somatization symptoms.

Keywords: Insecure Attachment, Somatization, Self-Defense Ambivalence, Passive Stress Coping